



28일 광주시 동구 황금주차장 앞 양복 4차선 도로가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를 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외국 손님맞이 앞둔 광주 기초질서 '엉망'

■ 6개월 남은 하계U대회 점검해보니

도심 공중·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없고 악취심해 '불결'

도로엔 불법 주·정차 만연한데도 단속은 커녕 불구경

2015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불법 주·정차, 불결한 공중화장실 문화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광주를 찾는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무질서한 광주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기본적인 질서 의식을 다잡고 문화 역량을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에게 권하기 민망한 개방화장실 =광주시와 일선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는 취지로 지정, 운영 중인 민간 개방화장실의 경우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은 지 오래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일선 자치단체가 공공 화장실 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지정, 예산을 지원하는 개방 화장실은 ▲동구 205개소(공공 25개소) ▲서구 208개소(49

개소) ▲남구 180개소(16) ▲북구 247개소(55) ▲광산구 360개소(84) 등 모두 1200개소(250)에 이른다.

하지만 공공화장실 뿐 아니라 상당수 민간 개방화장실의 경우 악취가 심하고 위생용품조차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해 국제행사를 앞두고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조각공원 화장실의 경우 화장실 칸막이가 훼손돼 이용이 불가능하며 5·18 기념공원 장애인용 화장실도 망가져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북구 문화동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위생용품은 커녕, 청소를 했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심해 이용하기 힘들었다.

행정당국이 매월 1~5만 원 상당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민간 개방화장실도 비슷해 아예 문을 잠그고 개방하지 않는가 하면, 비누·화장지 등 위생용품조차 비치하지 않는 등 불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화

장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광주시가 U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시민·외국인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로 민간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용성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엉망'인 교통질서, 이번에 뜯어고쳐야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공감하는 "건너편 횡단보도, 멈추면 주차장"이라는 말은 무질서한 광주 교통질서를 엿볼 수 있다.

충장로·금남로, 상무·용봉지구와 전대후문 일대 도로의 한 차로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야간에는 이중 주차까지 더해지면서 극심한 교통혼란을 일으키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에서는 오후 6시가 지나면 "경찰에 연락하세요"라며 떠넘기고 경찰은 교통 소통·범죄 예방 등 고유 업무를 내세워 뒷전으로 밀쳐놓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입구와 상무·용봉지구 먹자골목, 유흥가 일대는 크리스마

스를 비롯, 공유일·주말이면 한쪽 차로가 주차장으로 변하지만 경찰·구청은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해당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제외한 채 차량을 소통시키는 등 '이상한' 교통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5일 현재 광주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동구 1만9763건(경찰 통보 501건) ▲서구 10만2323건(153건) ▲남구 2만569건(1158건) ▲북구 6만6822건(50건) ▲광산구 10만62건(15건)으로 총 30만7859건에 달한다.

하지만 '일회성' 단속과 계도 활동에 머무르면서 시민 인식 전환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거세다.

경찰의 경우 올 들어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자치단체에 통보한 사례는 전체 단속 건수의 0.33%로, 지난해 같은 기간(9604건·3.4%)에 견줘 크게 줄었고 대대적 단속이 나섰던 지난 2013년과도 사뭇 다른 상황이다. 지역민들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크게 늘어나는 하계 U대회를 앞두고 부끄럽지 않은 '손님맞이'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기초 질서 확립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0 달뜨기 12:33
해질 17:29 달지기 00:29

낮에는 비교적 '포근'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0/9	보성	구름많음	-4/9
목포	가름흐리고비	0/9	순천	구름많음	-1/10
여수	구름많음	2/9	영광	구름많음	0/9
나주	구름많음	-3/9	진도	구름많음	-1/9
완도	구름많음	0/10	전주	맑음	-1/8
구례	구름많음	-4/9	군산	맑음	-1/8
강진	구름많음	-2/10	남원	맑음	-5/7
해남	구름많음	-2/10	홍산도	가름흐리고비	5/9
장성	구름많음	-3/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서해	남해	서~북서	0.5	서~북서	0.5~1.0
남해	남해	서~북서	0.5~1.0	서~북서	0.5~1.5
남해	남해	서~북서	0.5	서~북서	0.5~1.0
서부	남해(동)	서~북서	0.5~1.5	서~북서	0.5~1.5
남해(서)	남해(서)	서~북서	0.5~1.0	서~북서	1.0~1.5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40
빨래	6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7:42	00:23
	20:07	12:43
여수	밀물	썰물
	08:20	02:29
	21:20	14:53

◇주간 날씨

30(화)	31(수)	1/1(목)	2(금)	3(토)	4(일)	5(월)
1/9	-2/4	-5/1	-4/1	-3/4	-2/6	-2/7

산재 브로커에 '명의 대여' 변호사 2명 징역·벌금형

장해급여 청구대행 40대 징역형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28일 장해급여 청구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산재 브로커 박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3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9700만원을 선고하고 다른 변호사 신모(64)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589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무한 경쟁에 돌입한 업계 현실과 사건 선임 '양극화' 현상이 맞물

리면서 나타나는 법조계 실상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아 착잡한 분위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일어난다.

재판부는 아울러 7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변호사와 노무사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행위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산재환자들에게 높은 장해등급을 받기 위한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북구 문화동시외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은 벽면 타일이 깨지고 낙서로 얼룩져 있다.



광주시 북구 말바우 만남의광장 남자화장실 세면대 배수관이 고장난 채 방치돼 있다.



상무조각공원 남자화장실 벽면에 누군가 뚫어 놓은 구멍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선물

식약청 검역필 41762-14-002447J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천연설탕
자연산
100%

런칭 기념 2+1

- 시럽 프리미엄(750g) 28,000원
- 시럽 일반(750g) 22,000원
- 가루(1kg) 38,000원
- 고체(1kg) 36,000원
- 강황(500g) 15,000원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날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강황의 효능

1. 치매예방
2. 당뇨 비만 등 성인병치료 예방
3. 관절염 치료 및 예방
4. 다이어트 효과
5. 항암효과

건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설탕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양빌딩 603호 네이처코미